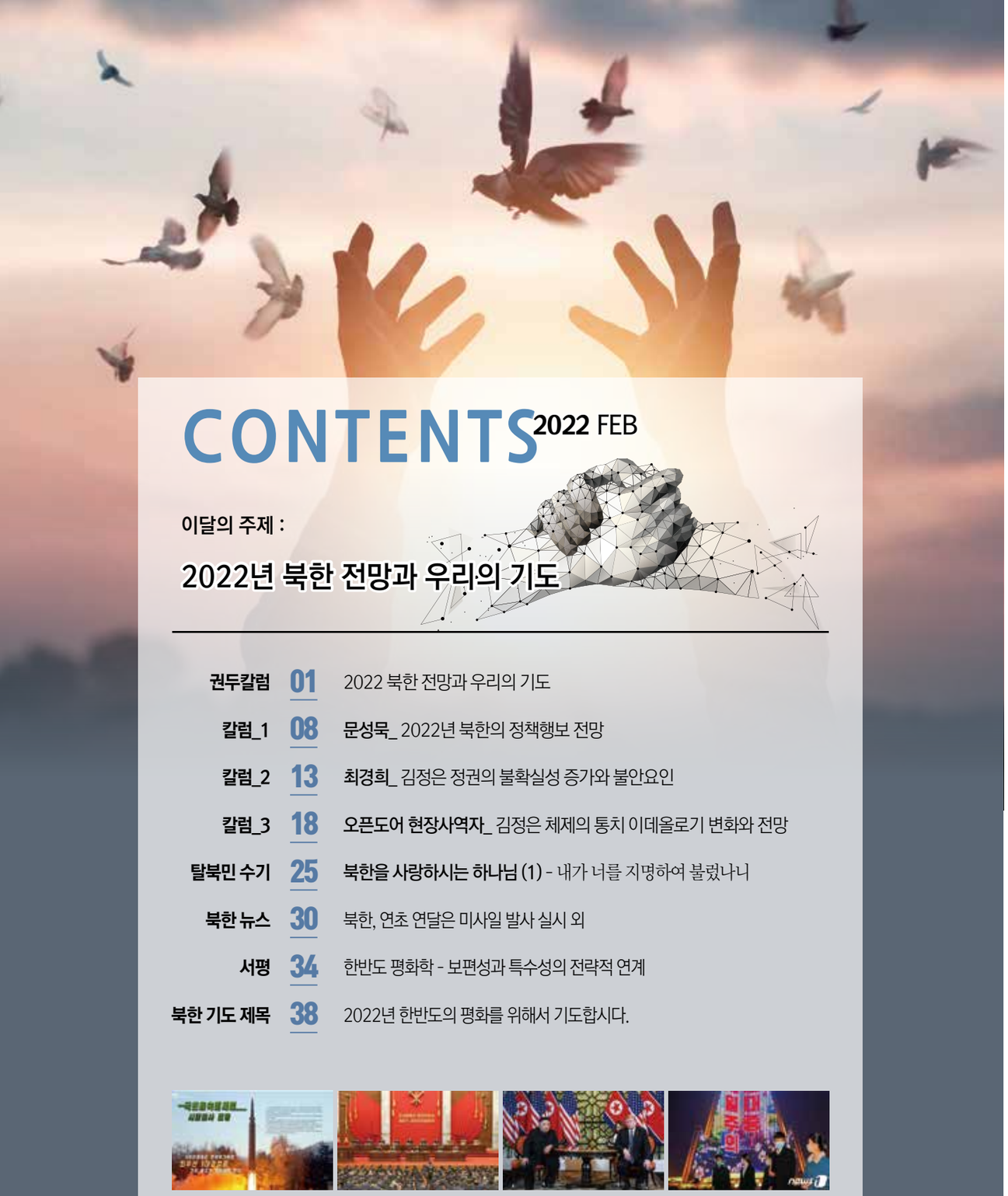
북한개발소식 02

2022 FEB | 통권 196호

| 이달의 주제 |

2022년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2 FEB

이달의 주제 :

2022년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권두칼럼 01 2022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칼럼_1 08 **문성묵**_ 2022년 북한의 정책행보 전망

칼럼_2 13 **최경희**_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 증가와 불안요인

칼럼_3 18 **오픈도어 현장사역자**_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 변화와 전망

탈북민 수기 25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 -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북한 뉴스 30 북한, 연초 연달은 미사일 발사 실시 외

서평 34 한반도 평화학 -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

북한 기도 제목 38 2022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권두칼럼

2022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 및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화의 소식보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가 더욱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신년 동향을 중심으로 2022년 북한의 행보를 전망하고 관련된 우려를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신년사를 대체한 제 8차 당대회 제 4차 전원회의

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도자의 신년사 대신 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로 신년사를 대체했다. 김정은 체제의 당이 주도하는 시스템 정치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보도된 회의 내용에서는 급격한 정책적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였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예외없이 언급되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분야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분야였다.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식량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도 경제부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당국은 단기간에 봉쇄 및 경제제재가 완화될 가능성보다는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코로나 비상방역사업 및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투쟁에 대한 강조가 이어졌다.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대외정책 관련 부분이 제외된 점은 눈길을 끈다. 노동신문은 신문은 결론에서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남북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으나,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는 김정은 취임 10주년 및 김일성 생일 110주년 (4월),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 등이 겹치는 중요한 해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만드는 것이 국가 목표 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당국이 올해 어떤 기념비적인 성과나 내세울

만한 업적을 쌓기 위한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이 주목되었다.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을 북한의 '혁명적 대경사'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식의주 문제 해결 등 인민생활 및 인민경제 향상, 국방력 강화, 완벽한 방역 등 '국가의 비약적 발전'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 대북제재, 북핵 문제 해결의 요건이 단시일 내에 충족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은 내부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북핵 문제의 원칙 견지 등 '현상유지 정책 기조'를 정한 것으로 분석했다.[1]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 분석에서 올해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기념일이 몰리는 4월로 보고 특히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의 최대 성과로 국방력 강화를 선전한 만큼 관련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즉 북한 당국이 3월 한국의 대선 결과와 한미연합훈련 진행 상황, 4월 대내 정치 필요 및 군사기술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치군사적 행보를 보이며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1~2월 북한의 메시지에 주목하며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2]

북한의 무력 도발과 군사적 위협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북한은 전원회의 이후 1월에만 4차례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 1월 5일을 시작으로 11일, 14일, 17일에 걸쳐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는 그 내용도 내용도 다양해서 5일과 11일에는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14일에는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 17일에는 전술 유도탄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 발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북한이 연초부터 연달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기념일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의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올해 2월에 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에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는 '혁명적 대경사'와 김정은의 당과 국가기구 최고직책 추대 10주년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들이 있어 북한은 연초부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 부문에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백석대학교 초빙교수는 "북한 정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세울 것은 군사력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연초부터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은 군사강국'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체제의 성과를 홍보하려는 의도도 배경에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3]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

〈북한에서 발간하는 화보집 '조선' 2022년 1월호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 글이 실려있다(사진=BBC코리아)〉

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전략무기 고도화를 밝힌 만큼, 미사일 연속 발사는 핵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으로 완결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 기존 미사일을 대체하고 전장에 실전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시험발사한 KN-23과 KN-24, 극초음속 미사일 모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데다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체제도 무력화할 수 있다. 박 교수는 또 "제한된 수의 핵미사일이 아닌, 일반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면 미사일 수를 줄이는 군축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군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북한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4]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더 나아가 북한은 잠시 중단했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1월 20일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지난 2018년 4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언했던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재고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ICBM·핵실험 카드를 만지작 거리게 된 것은 자신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 펜데믹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갈등 등으로 북한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인상을 받으면서 주목도를 끌어올리고자 관련 조치의 철회 가능성 카드를 활용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내달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남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전방위적으로 압박의 메시지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이 이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는 데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철회를 공식 선언하고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등 실제 행동을 보일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딜레마

앞서 살펴본 연초 북한의 행보는 올해 요구되는 군사적 성과와 업적의 필요, 그리고 악화되어 가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 정세의 실타래를 풀어내야 하는 북한의 애로사항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볼 때 북한의 행보는 상당히 모순적이다. 앞서 살펴본 전원회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체제와 민심 안정을 위해 경제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1 문인철, "당 중앙위 제 8기 제 4차 전원회의_정치", 북한 당 중앙위 제 8기 제 4차 전원회의로 본 2021년 북한 평가와 2022년 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자료집 (22.01.03), p 9.

2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 22-01 (22.01.01). p 11.

3 "북한은 왜 엿새 만에 두 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렸나?", 22년 1월 11일,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59890896〉

4 "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22년 1월 17일,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60022132〉

정치 군사적 업적을 위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실험 등에 힘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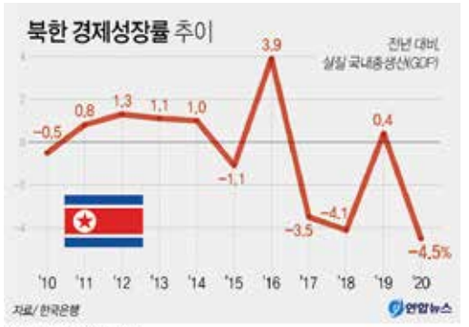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러한 북한의 모순적인 행보의 이유는 북한 경제 침체의 배경을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의 북한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의 관리방법에 대한 부분적인 개혁이 시도되었고 시장도 당국의 묵인하에 발전을 이루었고 일부 공식화되기도 하였다. 중국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대외 교역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북한 경제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뒤이어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면서 북한 경제는 다시금 침체로 빠져들었다.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17년과 18년에 상당한 수준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20년에도 고난의 행군 이후 최저치인 -4.5%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역성장이 발생한 해들을 살펴보면 17, 18년은 각각 5차 (16년 9월 9일)와 6차(17년 9월 3일) 핵실험으로 인해 한층 더 강력해진 대북 제재, 그리고 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살펴보면 결국 대북 제재와 이로인한 대외 무역의 제한이 경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재 초기 북한은 수출 감소로 인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소비재와 중간재 수입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를 통해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산업 생산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누적되는 무역적자 속에서 이러한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후 몰아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른 국경봉쇄는 그나마 유지해오던 수입도 급감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의 경제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팬데믹이 끝나고 국경 봉쇄가 풀리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시점의 차이일 뿐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북한 경제난 해결은 요원하다고 진단한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봉쇄 상황을 북한이 제재로 인해 외화가 고갈되어 수출입 전반이 제한되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국경 봉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보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북한은 무역 적자로 인한 외화 부족으로 현재와 같은 폐쇄경제의 모습을 띌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5] 북한 경제가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아 북한의 권력층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의 경제 사정 및 주민생활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 권력층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북한이

5 홍제환, 2021,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평가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1년 12월호, pp. 32-36.



김영은 기자 / 20210730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절실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문제는 북한 당국의 최우선순위는 체제유지이며, 경제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도 경제 이슈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집권 초기 시장화를 용인하고 개혁적 행보를 보였던 김정은 정권이 제재와 봉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와 관리 강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은 체제 유지에 더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금 꺼내드는 핵 카드와 제재 해제

앞서 언급한 맥락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북한 당국이 경제난 해결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언급하는 등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면에는 핵과 미사일 전력을 이용해 대북제재 해제를 얻어내겠다는 복안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북 경제 재제의 해제 또는 완화를 얻어내야만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인식에 따라 핵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자신의 핵 포기를 목표로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핵 포기가 아닌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으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도 감지된다. 정권 유지를 최우선시 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핵을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대신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하여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으로 협상을 이끌고 대북 제재 해제도 얻어내겠다는 심산이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 유지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경제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황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적극적인 미사일 개발 행보와 핵개발 카드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여 조바심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도록 (또는 양보를 하도록) 만들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북한 역시 시간에 쫓기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상황이 급한 쪽은 북한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순간에도 봉쇄와 제재로 인한 악영향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경제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면 북한 지도부 역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북한 당국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제4차 전원회의에서 대외 정책 변화에 대

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그러한 지도부의 고민을 짐작하게 한다. 이번 핵실험 재개 시사 움직임도 당장의 행동보다는 일단 미국의 적극적 행동을 유도하고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더 주된 목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북한은 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애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과 외교적 활동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예측들을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 특히 제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갈등 국면을 맞고 있고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앞으로의 국제관계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잠잠했던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다시금 요동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어려움에 처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지금까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행보를 전망해보았다면, 이러한 전망이 우리에게는 어떤 선교적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뉴스와 보도를 통해 다루어지는 국가 간의 거대한 외교적 담론과 논의 이면에 존재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점이다.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행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던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슈를 급부상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와 연관된 경제난이나 정세의 혼란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지도층과 일반 주민 사이에 보통의 국가의 그것보다도 큰 간극이 존재한다. 경제난이 심각해진다면 분명 지도층에게 압박이 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겪을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금도 경제제재에 더해 국경 봉쇄조치로 곳곳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외교적 행동과 함께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더욱 철저하게 통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을 고단함도 클 것이며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탄압도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민들의 고통은 1차적으로는 말로는 위민헌신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북한 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이 가장 큰 요소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이슈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대북 제재의 기본 얼개가 북한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하여 북한 당국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클 것이다. 따라서 정세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든지간에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돕고 선교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먼저는 평화적인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항상 변수가 많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연초부터 전개되고 있는 외교적 구도로 볼 때 단시일 내에 북한의 문이 열리거나 어떠한 외교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22년을 김정은 집권 10주년과 김일성 탄생 110 주년 등을 기념하는 혁명적 대축제로 만들어야 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더욱 자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관련해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제로 재개한다면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지거나 다른 형태의 압박 수단이 고려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태 악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들의 생존, 그리고 선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선교 현장이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NGO 등을 통한 공식적인 루트로의 지원의 길이 열리기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한 선교활동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종결과 국경 봉쇄 완화,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등이 겹쳐진다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주민들을 영육간에 도울 수 있는 문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올 해도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떤 모양으로든 이들을 영육 간에 돕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해외 선교 현장이든 NGO 활동이든 전반적으로 위축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 다시금 장기적 안목에서 현장 사역을 구상하고 사역자들을 세우는 등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교적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교회와 선교단체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활기차게 시작해야할 새해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에는 곤란한 국내외 상황을 타개하려는 절박함도 묻어있는 듯하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정적이고 심지어 절망적인 지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악한 이들과 상황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그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무릎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2022년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2022년 북한의 정책행보 전망

문 성 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은 2022년 올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김정은 총비서의 신년사를 생략했다. 대신,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서로 갈음했다.[1] 이어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갔다. 5일에는 극초음속이라 주장하는 미사일을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11일에도 동종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하여 독자 제재를 가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2발을 열차에서 발사했고 17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중지를 선언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미 압박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로 보아 앞으로 군사적 긴장상황이 고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다. 3중고에 더해 잇단 미사일 발사가 이어진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 북한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2년 만에 북한의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으로 운항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나와 국경개방의 신호탄이 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2] 올해는 북한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사와 일정들도 줄줄이 있다.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80회 생일, 3월 한미연합연습 및 한국의 대통령선거, 4월 김일성 전 주석의 110회 생일 등이다.

이 글은 올해 북한의 정책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 방향을 전망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우선 북한의 향후 정책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지난해 말 개최된 당 전원회의 결정서와 정치국회의 내용을 살펴본 후, 올해 북한의 대내 정책행보와 대외 정책행보로 구분하여 전망하고 우리의 과제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전원회의 결과가 신년사로 대체된 것은 2019년말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와 2021년초 제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2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6024752083?section=nk/news/all&site=major_news01 검색일 : 2022. 1. 16.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 요지

우선, 지난해 12월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2022년 국정방향을 결정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 ②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2022년 국가예산안, ③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④ 당 규약 일부 조항 수정, ⑤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의 2021년 하반기 당조직 사상생활 정형, ⑥ 조직문제 등 총 6개 의제를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만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모습.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 (데일리NK=노동신문)〉

첫째, 2021년에 대한 평가는 "엄혹한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견하여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인민적인 공통된 사상의식이 보다 강렬해져 집단주의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방공업부문에서 첨단 무기체계들을 연속 개발해내고 군사력의 선진성과 현대성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잊지 않았다.

둘째, 2022년도 당과 국가사업의 중심방향에 대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칙적 문제와 투쟁방침을 천명했다. 2022년 금속, 화학, 전력, 석탄 등 기간공업 부문이 수행해야 할 중요 정책적 과업들을 제시했다.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해야 함을 강조했다.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수도(평양) 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제시했다.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경제의 물질적 토대를 정비 보강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자고 했다. 과학과 교육, 보건 등 문화분야 사업을 혁신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자고 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양식과 도덕기풍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근본이고 활력소임을 강조했다.

셋째,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빈틈, 허점없이 강력 전개해 나가야 할 최중대사임을 지적했다.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에로 이행"시키는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 완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넷째, 국방부문과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군사

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군수공업부문에서 현대전에 상응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을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 추동하여,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목표를 달성하자고 제기했다.

다섯째, 대남, 대외관련 방향은 원론적 수준이다, 즉,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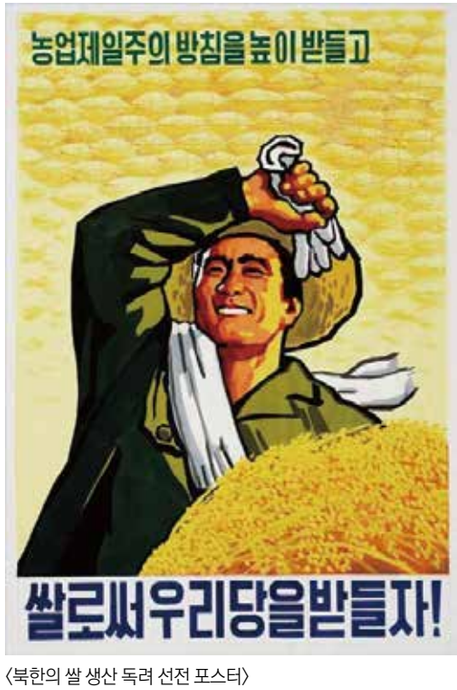
끝으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과 관련하여 결정문의 거의 반에 해당되는 부문이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다. 김정은은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보고를 통해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킬 방향을 제시했다. 즉, 농업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무장시키고 농촌을 현대적 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자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금년 1월 19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김정일, 김일성 생일 행사를 경사스럽게 치른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한미연합연습과 미국의 대북제재, 적대시정책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 행위들을 확고하게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사업을 재포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잠정중지해왔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해 검토해보도록 해당 부문에 지시하였음을 강조했다.

대내 행보 전망 : 자력갱생 기치 하 내부결속과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

새해 북한은 대내적으로 2021년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력갱생'이라는 표현은 결정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바탕 위에서 기본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원회의 결정문에 거의 반에 해당되는 분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특히 올해는 농촌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은 특히 식량생산과 관련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이라고 규정하고, 곡물, 축산, 과일 등의 향후 10년간 달성할 알곡생산목표, 축산물, 과일, 남새(채소), 공예작물, 잠업 생산목표를 제시했다. 결정문대로 북한은 농업근로자들의 사상개조와 과학농사 제일주의를 요구하면서 협동농장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특혜조치도 취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농업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것은 그만큼 민생과 식량문제가 심각하고 민심이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한이 처한 식량사정은 녹록치 않다. 2017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이 2020년초 코로나 19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을 봉쇄하면서 식량 수입에 차질을 빚었다. 거기에다 식량생산의 핵심인 비료



〈북한의 쌀 생산 독려 선전 포스터〉

수입의 급감과 자연재해도 식량생산 저하에 한몫 거들었다. 급기야 작년 6월 김정은은 식량난 해소를 위해 군량미를 풀 것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서를 하달한 바 있다. 북한주민의 골간이 농민이라는 점에서 농업문제는 북한주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회의 결정대로 북한정권은 농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고 농업의 현대화를 통해 식량 증산, 먹는 문제 해결에 역량을 모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사상무장을 강조한 것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들이 사상적으로 동요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진다.

아울러, 올해도 코로나 19 관련 방역을 제1의 중대한 과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김정은은 코로나 발생 이후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주민통제와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문에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참에 강력한 통제를 좀 완화한다는 의미인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주민들의 누적되는 불만을 조금이나마 의식한 조치일 수도 있다. 선진적 방역 언급으로 보아 그동안 백신을 거부해온 북한이 국제사회의 협력의 손을 잡고 백신을 수용할지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년이나 이어온 국경봉쇄를 계속할지, 아니면 조금씩 풀어가면서 경제난을 해결해 나갈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각종 기반공업의 발전과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등 국가건설계획의 경우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발전이 난망하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북한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핵·미사일 역량의 강화 시도는 지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제재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대외 행보 전망 :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 위협과 압박 수위 제고

전원회의 결정문에 나타난 대남, 대미방향은

단 두 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중단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상황 악화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심각한 위기 국면에 봉착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견지해온 외교적 접근도 어려워졌다. 그동안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놨던 북한이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당장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이중기준 철회, 제재완화 등은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북한에는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있다. 2월16일 김정일 80회 생일, 4월15일 김일성 110회 생일은 북한에서는 최고의 정주년 명절이다. 성대하게 치러질 것이다. 3월에는 한미연합연습도 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가능성이 우선 점쳐진다. 김정은이 지시한 바 전술 핵탄두 실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만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대형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즉각 유엔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고, 이로인해 한반도는 물론, 미북간 최고의 군사적 긴장, 어게인 2017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 기도 제목

북한의 정책행보를 전망하면서 암울한 생각이 앞선다. 김정은은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한 행보에 매달리며 과거로 회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고통은 모두 북한 주민들에게로 돌아간다. 물론,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치와 경제 등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욱 높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노골화되는 것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걱정된다. 한미연합억제력에 기초하여 자위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협상력도 제고된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보편 가치인 자유민주와 인권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인정받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북한 인권이 개선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인권 문제에 소극적 행보를 이어간다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북한의 변화를 지속 유도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이 지금의 행보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지속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 증가와 불안요인

최 경 희 (사단법인 SAND연구소)

2022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속 강행해 주변국을 비롯한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월 5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고 14일에는 평북도 의주군 일대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17일 평양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탄 2발 발사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신형탄도로켓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천명한 내용을 이번에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2021까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62회, ICBM(화성-14형, 화성-15형) 발사를 3회로 2017년(7.4, 7.28, 11.29)에 모두 발사했다. 2018년 이후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등 모라토리엄을 준수하는 가운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2021.12.16. 배포한 통일부 참고자료). 그러나 이번처럼 시간과 빈도가 높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의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에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대내외적 돌발 행위는 내부사정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3중고'(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대북제재장기화, 연이은 자연재해, COVID-19의 확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외무역과 북·중 국경을 철저히 봉쇄(2020년 1월 31일)하고 있어 김정은 집권 10년 중 최악의 경제문제, 식량문제, 보건의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 대중연설에서 인민의 고난을 걱정하면서 울먹이던 김정은의 모습은 당장 수습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에서 인민을 다독이는 노력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념하여 집필한 노동신문(2021.12.22.) 정론(동태관 외 2명)은 김정은 정권 "10년 여정의 마지막 해인 2021년, 이 해는 시련에 있어서 건국 이래 최악이고 위민헌신에 있어서 10년의 절

〈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연설 도중 울먹이는 김정은. 연출된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의 어려운 민생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으로 풀이된다.〉

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문장의 앞부분은 북한의 현실이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능가할 정도이며 보다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뒷부분에서 이를 김정은의 위민헌신 정치력의 소재로 사용하는 데 의미를 둔 듯하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7차 당대회 이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에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고백했다. 7차 당대회에서 내세웠던 '백전백승, 일심단결'의 슬로건이 8차 당대회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으로 바뀌었다. 자신감에 찬 공격성 짙은 슬로건이 5년 만에 수세적으로 변해 대내외 환경과 조건의 불확실성이 의사결정에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김정은의 불안감은 이번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노동신문(2022.1.1.)은 김정은이 "지금의 대내외 형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판단하며 정확한 투쟁방침을 틀어쥐고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정확한 걸음을 옮겨디뎌야만 실제적인 발전적 변화로써 다음 단계의 투쟁에로 이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85자로 구성된 한 문장에 '정확히'라는 용어가 5회나 사용되어 정확히 알수 없는 대내외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결론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방법은 함구하고 있다. 그만큼 다사다변한 국제정세와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정확한 분석 판단이 어려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상태로 평가된다.

불안감의 또 다른 작용은 3년간 신년사를 생략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매년 새해 첫날이면 김일성의 닮은 모습으로 육성연설을 하던 김정은의 신년사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 전원회의 결정서(2020년, 2022년)나 김정은의 친필 메시지(2021년)로 대체하고 있다. 과거 전례도 있다. 김일성 시대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일관되게 신년사를 진행했으나 불확실성이 가장 높았던 6.25전쟁 중 1952년, 1953년, 그리고 정전협정 직후인 1954년까지 3년간 생략된 적이 있다. 그리고 김일성이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당 총비서로 처음 추대되던 1966년과 노동당 제5차 대회가 개최되던 1970년에는 신년사를 노동신문 사설로 대체했고 북한의 정치사에서 가장 엄혹했던 '8월 종파사건'이 발생한 이듬해 1957년에는 신년사가 부재, 사회주의권 개방정책과 3차 7개년계획이 시행되던 1987년에는 김일성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신년사를 대체했다. 흥미로운 점은 신년사가 생략되거나 대체된 시기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치체제 재정비에 집중하는 공통점이 있다. 지도자가 인민과 소통하는 신년사는 친밀감을 높이고 권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만큼 신년사 생략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의사결정의 큰 변화라 하겠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 증가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대외적으로 상실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물론 기존에도 비정상적 국가운영 방식과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제재가 중첩되는 가운데 불안감이 존재했지만, 하노이 사건은 기대만큼이나 북한을 좌절시킨 불안감 증대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어서 이듬해 2020년 1월 31일 북한이 COVID-19로 인한 북중국경 봉쇄 및 단절을 선포하면서 내부에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운동이 강력히 추진되고 2021년에는 급기야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한편으로 세계가 COVID-19 확산으로 인해 국가이기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경제와 외교를 희생하면서 수십 년을 거쳐 만들어온 핵카드의 유용성은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이 또한 불안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과 주변국의 핵교섭에 대한 보상 노력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본질적인 시장화 확산도 불안감의 요인이다. 이번 당전원회의에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며 내각 부총리 박정근을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격했다. 시기마다 정권이 지향하는 필요성에 따라 인사문제가 취급되는데 박정근의 정치국 위원으로 진입은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경제문제와 농촌문제 등을 국가 계획적 차원에서 역할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장기간의 시장화로 사경제 비중이 보다 상승하는 추세에서 사회주의, 집단주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의 총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시장화로 인해 개인의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권력분산의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무질서화에 대한 고민도 인사문제에서 엿보인다. 한국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상 리태섭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한 것도 사회문제의 연속선에서 선택한 인사이다. 사회안전상은 최근 1년간 김정호(전 인민보안상), 장정남(전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리태섭(전 육군 5군단장)으로 3번이나 교체되었고 국가 치안의 총책을 전임에 이어 군부 인사로 발탁한 것도 사회질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외교관계 단절에서 오는 상대에 대한 불투명성이 불안감의 요인이다. 북한은 COVID-19의 확산방지를 이유로 지난해 도쿄올림픽 불참, 2월에 곧 개최될 북경올림픽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년 2월 28일(현지시간) 단독 정상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참을 선언했다. 현재 평양에는 중국, 쿠바, 러시아 등 9개 정도의 공관이 남아있으나 소수의 인원만 있고, 국제기구는 당초 8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전원이 철수해서 남아있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0월 9일 루마니아 외교부가 주북한 대사관 외교 및 영사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힌 데 대해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는 루마니아 공관 철수를 끝으로 적어도 현시점에선 평양에 서방 국가 외교관들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사회는 COVID-19 확산에 백신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북한은 셀프 봉쇄로 대응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선택은 백신과 국경봉쇄를 넘어 대사관계를 중단할 만큼의 강력한 쇄국정책을 선택한 셈이다. 네트워크 결핍으로 인한 상대국에 대한 불투명성, 정보와 지식의 부재는 불안감 증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한국의 대선정국과 다음 정권의 불투명성도 불안감의 요인이다. 중첩된 3중고의 현실 속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해결방안이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북한에 있어서 한국은 가장 유용한 변수이자 대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다. 어떤 국가들보다 그리고 중국보다 더 중요한 상황변수이자 든든한 자산이다. 2018년 한국의 역할을 통해 김정은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정치지도자로 등극한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다. 이러한 경험이 한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은 이유로 작용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단절된 요즘 상대방의 의도가 불투명하고 더구나 대선정국에서 차기 정권에 대한 궁금증은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연초부터 연속 발사한 미사일 도발도 불확실성이 증가에 따른 불안감의 반영으로 한국 대선에 일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반응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속사정으로부터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체를 고집하는 김정은 정권이 문제의 본질을 객관에서 찾기보다 주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김정은식 쇄국정책이기 때문이다. 앞뒤가 꽉 막히고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각국 대사관들이 철수한 사건은 의사결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 12월 노동신문 동태관의 정론은 김정은 집권 10년의 성과를 '백두산의 10년'으로 평가하며 그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귀에 익은 용어는 '새로운'이라는 세 글자이고 북한 주민에게 가장 친숙한 용어 '승리'라고 역설한다. 김정은 정권 10년은 한마디로 '혈통국가 제도화'에 집중되었고 그 성과는 자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정은이 제시한 새로운 길,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정책, 새로운 방법 등은 승리와는 거리가 먼 허상이고 주체가 없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2022년 북한의 대외관계는 미중갈등 속에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경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중교역이 약간 움직임을 보이겠으나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를 빌미로 대화의 가능성을 끌어내려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밀려나고 있는 이 상태가 불안감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각종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강경자세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대화 재개를 타진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선 정국에서 북한의 간섭이 예고되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5월 10일 새로운 정권이 출범해도 대북정책 검토, 수립, 시행과정을 걸치면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기쯤까지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의 새 정권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격적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이므로 금년도 남북관계는 긴장감이 흐르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구실로 한 혈통국가의 쇄국정책이 아닌 세계와 소통하는 보통국가의 개국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기본권이 지켜지길 바란다.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 변화와 전망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북한의 신년메시지 분석은 매년 초 북한관련 여러 기관과 매체에 중요한 연례업무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북한정권 최고지도자에 의해 발표된 신년사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차적으로는 국제사회에 전하는 신호로서 해당시점 북한당국의 정세인식과 국정과제 설정을 보여주는 핵심 정보였다. 그러나 2020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더 이상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러 기관과 언론은 연초 북한의 신년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북한정권 또한 신년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신년메시지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신년사 발표가 중단된 이후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발표문이 최고지도자의 신년메시지 역할을 이어받았다. 2020년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을 때는 2019년 말 당 중앙위 제 7기 5차 전원회의의 발표 내용이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에 대한 공식 발표로 분석되었고 2021년에 연이어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을 때는 2021년 초 당대회 결정사항이 신년사와 같이 여겨졌다. 많은 연구가들의 예측과 같이 2022년도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고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발표문이 1월 1일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3년 연속 반복되며 당대회 발표문이 과거 신년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당대회가 정례화 되고 위상도 강화되는 상황의 의미를 고찰해보고 이번 당대회의 발표를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주요한 특성과 비교하여 10년차를 넘긴 김정은체제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물론 김정은 체제의 여러 사안 중 가장 변화가 두드러지고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경제영역이다. 그러나 경제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 경제 주제를 다룰 때 다루도록 하고 이 글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의 변화에 한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김정은 이전의 이데올로기

모든 정권의 정당성은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당성의 원천은 시민의 지지에 앞선 진리, 즉 올바른 노선의 독점(monopoly on the correct line)에 있다. 과거 공산주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일종의 정치종교(political religious)로서의 성격을 지니는데 사회주의 체제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성서에, 최고지도자는 교황에, 당 관료는 성직자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김병로는 그의 연구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에서 북한의 체제를 기독교와 비교하는데 그는 교리 및 신념체계, 종교의식과 행위규범, 공동체의 윤리도덕과 조직체계에 비추어 북한의 체제와 기독교의 유사성을 심층 분석한다.[1]

중소분쟁 등 사회주의권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계승의 위기 속에 이른바 '수령제'를 확고히 한 북한의 경우 진리의 독점과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에 대한 의존은 더욱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1967년 갑산파 숙청을 기점으로 권력정치적 차원에서 유일영도를 실현한 북한이 사회주의권에서도 전무후무한 절대적인 개념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주민의 일상에서 실현할 극단적인 '생활총화'라는 제도를 수립한 것은 북한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위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1980년 6차 당대회를 통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당의 지도이념에서 삭제되고 조선로동당이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의해서 지도된다고 명기함으로써 김일성주의의 조직 이데올로기는 완성된다. 이론적으로는 1982년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순수이데올로기에 해당되는 사상부분이 정리되고 이어 1985년 완간된 "주체사상총서"를 통해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인적 체계로서의 김일성주의가 완성된다.[2]

북한정권은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으로 미국의 위협을 들고 있다. 북한정권의 공식출판물들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북한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미국은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의 보루라는 것을 알기 때문, 둘째로 북한이 전 세계의 진보적 역량, 반제국주의 자주역량을 선도해나가기 때문, 셋째로 미국의 세계전략의 기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인데 북한이 아시아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3] 선군정치의 개념은 북한 내외를 불문하고 독특한 김정일의 정치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1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2 강혜석, 안경모,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2012-2021) '선군'에서 '국가와 인민'으로,"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pp. 74-78.

3 전덕성,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p.7-10.

기독교의 집회	집회시간	북한의 모임	모임시간
주일예배	일요일	생활총화	토요일 오전(또는 오후)
수요예배	수요일저녁	수요강연회	수요일저녁
새벽기도회	새벽5시	새벽참배	새벽 5시경
QT	아침일과 시작 전	아침독보회	근무 전 30분간
가족예배	부분적 시행	가족 독보회	부분적 시행
구역예배(모임)	금요일	인민반회의(학습)	토요일 오전 혹은 오후, 또는 일요일저녁(농촌지역은 장마당 전날 저녁)
주간성경공부	요일 신축적	월요학습침투	월요일 저녁(요일변동가능)

〈북한의 모임과 기독교 교회 모임의 비교. 상당한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공산국가들에서 대부분의 국가이론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창조성을 발휘하여 각각의 시대와 정권에 맞게 적용되어 전략과 정책으로 입안되었고 상황에 따라 이데올로기로 발전된다. 스탈린과 모택동주의가 그랬고 김일성주의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오히려 그를 극복한 이데올로기를 표방한다. 그러나 선군정치는 김정일로부터 출발하여 김정일로 귀속되는 전략, 정책이다. 강혜석, 안경모는 이에 대해 "이러한 방식은 독자적인 권위의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책임을 전가할 퇴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위험한 방식"이었다고 진단한다.[4] 이러한 위험성을 일부 상쇄하기 위해 김정일은 2003년 연설을 통해 선군정치에 대해 김일성사상 중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노선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나 이 사실이 김정은과 선군정치의 절대적 관계를 희석시키지는 못한다.

김정은 시대 이데올로기의 변화

김정은 정권은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짧은 후계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정권의 출범을 준비했다. 이는 20년간의 후계준비기간을 거친 이후로도 김일성 유고 후 3년간 유훈통치라는 과도기를 거쳤던 김정일 정권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당규약을 통해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였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선군사상개념의 제시 이전 김일성주의에 대한 김정일의 정의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2017년을 전후로 북한의 문서에서는 "선군"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공식석상에서 선군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탈북민들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2017-2018년을 기점으로 공식적인차원에서 '선군'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후로 '선군'이 차지한 상징적 개념은 다시 '국가'로 회귀된다. 이는 2019년 4월 북한의 헌법개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시 개정된 국무위원회 위원장 규정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되었으며,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라는 구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라는 규정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운다"는 구문은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키운다"는 구문으로 수정되었다. 개정 이전과 이후의 헌법은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특이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굳이 국가라는 단어를 수차례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국가제일주의로 대표되는 북한의 국가중심적 통치담론의 강화경향을 보여주는 주요한 예이다.[5]

북한에서 인민대중이란 '자주성을 지향하며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 변혁해 나가는 사회적 집단'으로 규정된다. 북한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는 특정한 계급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근로 인텔리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이 개념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김정은의 인덕을 강조한 군중노선을 내세우고 있으며 '세도, 관료주의, 부패'에 대해 전쟁이라 할만치 강력하게 색출하여 처벌하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김정은이 현지지도에서 놀이공원의 풀을 뽑으며 간부들을 질타하거나 건설현장에서 "건설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종 지원사업을 장려함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고 질책하는 등의 행동들이 북한의 매체에 보도되고 있다.[6] 이러한 상징적 이벤트는 정권-인민의 이분법이 아닌 수령-간부-인민의 삼분법을 통해 인민대중의 편에서 간부들의 관료주의와 부패를 척결하는 영웅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인민대중을 우선시하는 이미지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심통치담론으로 강조되는데 2021년 1월의 제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말로 공식화 되었다. 당시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당중앙위원회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의 공고한 정치풍토, 당풍, 국풍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정치공세를 전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이데올로기 변화의 동향

4 강혜석, 안경모, p. 81.

5 강혜석, 안경모, p. 111.

6 "평양병원 건설 책임자 다 바꿔" 김정은 폭발, 조선일보, 2020, 7, 21 (검색일: 2022, 1, 20)

〈'인민대중제일주의' 선전하는 평양 류경호텔 (노동신문=뉴스1)〉

위에서 분석한 우리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사실 지난 70년간 북한에서 줄기차게 선포되던 말들로 새로울 것도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그 개념이 통치이념의 골간을 넘어서 과거 주체, 선군이 장악하던 상징적 개념의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북한의 보통국가화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에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김정은 정권 출범 10년을 맞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발표되었다. 그 중 1월 4일 열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83차 통일학 포럼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에서는 북한의 보통국가화와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발표에서 농업관련 성과 소개와 계획에 유난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는데 이를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식량증산 및, 농촌 살림집 건설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리더십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7] 그러나 농업분야에의 치중은 북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이루어지는 '정상국가적' 발표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산심의 관련하여서도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예산심의조'를 조직하여 2021년 예산집행 결과와 2022년 예산안을 분석하고 이를 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후 내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형식을 밟았다. 이 역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정상국가적' 행정이다.

1월 7일에 있었던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의 통일전략포럼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표가 있었다. 포럼의 "정치분야에 대한 평가 및 전망"세션에서 김갑식은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관련하여 북한정치체제의 대중(對中)모방적 동형화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동형화(isomorphism)란 특정한 환경에 놓여있는 조직이 주변에 위치한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조직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거나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조직을 모방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김갑식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는 개최간격과 시기, 역할 그리고 국가에서 차지하는 위치 에 있어서 중국의 전인대, 당중앙회의와 유사해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8]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 제대로 된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된 이후 비로소 당대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제 8기 4차 당대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또한 최근 들어 실질적 역할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최근 정치분과-최룡해, 당조직분과-조용원, 경제분과-박덕훈, 군사분과-박정천의 기능별 책임성이 제고되고 담당자들의 회의 진행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중국의 중앙영도소조와 같은 기능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대중 모방적 동형화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 제도적 차원에서 점차 감소하고 북한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를 낳게 한다.

이제까지 북한이 경제와 관련된 개혁적 정책을 내놓을 때 마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중국식 개혁경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어 과거 중국에서 실시되었던 비슷한 정책들과 비교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이 예측되었다. 대표적으로 2012년 북한의 '새경제관리체계'는 중국이 개혁개방시기에 시작한 '생산책임제'에,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중국의 '경제특구'를 벤치마킹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조직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거나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조직을 모방함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동형화 이론에서 볼 때,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 변화를 분석하는데 중국모델 분석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우리의 기도

과거 주체사상의 공식화는 국제적으로 보면 중-소 갈등을 시작으로 공산권 내부의 국제정세 변화에서 한곳에 편승하지 않음으로 외교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며 내부적으로는 해외출신의 반대파를 숙청할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후 있었던 대규모 식량난과 그로인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 국가조직의 실질적 진공상태를 군(軍)이라는 조직을 통해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모두 북한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체제의 내구력을 강화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였다. 김정은 등극 이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는 이념체계를 견인할 사상으로서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이전정권으로부터 내려오는 정신적 가치와 유산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될 것이다.

김정은은 2016년 공식적 절차에 따라 당대회를 통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위원장에 추대되었다. 북한의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이는 과거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던 비정상적인 체제와 차별화된다. 북한은

7 임수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보도문 분석: 경제분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83차 통일학 포럼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 자료집 p.6.

8 김갑식, 북한 제8기 제4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정치분야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제69차 통일전략포럼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자료집, pp. 12-14.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의 자격으로 직접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다. 제3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외교의 전면에 국가정상이 직접 나서며 북한이 정상국가의 모습을 갖추려는 노력으로 분석된다.

정상국가화라는 단어에서 "정상"이란 국제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와 정상적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상국가화" 자체를 이상적인 상태로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소통의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체제변화와 주민들의 인권 향상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의 가치에 반하는 일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의 해소를 위해 우리는 오랜 기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 시스템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순적인 북한의 시스템이 지금의 국제사회의 통념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국제사회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에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가치에 반하는 일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모순적 상황의 해소를 위해 기도함과 더불어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변화의 가능성들을 위해서, 북한의 진정한 정상국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
-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

꿈을 꾸는 자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시 32:8)"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소개할 '꿈을 꾸는 자매'(가명)님은 주님께서 당신을 알지 못했던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인도하심이 함께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험난한 여정 끝에 자유의 땅에 도착하여 지금도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자매님은 구약의 요셉과 같이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총 3편으로 연재될 '꿈을 꾸는 자매'님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중국, 한국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매님과 같이 주께로 돌아올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비전과 복음으로 북한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하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평정치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하리오.
- 남이장군의 북정가 -

어릴 적 좋아했던 남이장군의 시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애국심과 사명감이 투철한 아이였다. 북한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 하나님의 'ㅎ'자도 알 수 없었던 어린 나에게 국가는 바로 수령님이었기에, 이 결연한 남이장군의 시를 읽으면서 '나도 커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했었다. 그것이 애국이라 생각했다.

나는 소학교 때부터 체조를 곧잘 하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나의 꿈은 곧 '장래에 유망한 체조선수가 되어 나라의 위신을 높이는 것'이 되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꿈은 일찍 좌절되었다. 고등중학교 4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나는 체조 실력을 인정받아 나라에서 가장 체조를 잘하는 평양 교예단과 조선 인민군 교예단에 내정이 되었다 (이북의 교예단는 우리나라의 서커스단와 비슷한 개념이다). 교예단 활동은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입단하면 집을 떠나야한다. 이

〈식량 배급을 받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RFA 자료사진)〉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나의 교예단 활동을 절대 반대하셨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일찍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며 "그릇과 여자는 밖으로 내돌리면 금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다. 꿈이 좌절된 나는 부모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만약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지 않으셨다면 북에서 적당히 서커스 공연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시집을 갔을 것이고, 한국에 올 일도 없었을 뿐더러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밑바닥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초봄에 시험을 봐서 대략 200여명 중 상위 50명을 대학 진학반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나머지 학생들은 봄, 가을에 농촌 지원을 보냈다. 나는 기초 부족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달달 외우며 공부하여 상당한 점수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점수가 총 10점 만 점에 0.3점 정도로 조금 미달이었다. 그 정도 차이라면 담임 선생님이 본인 재량에 따라 진학반으로 배정해서 공부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지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내가 그 동안 체조 선수 생활로 학교 생활이 불성실했다며 가차없이 나를 진학반에서 떨어뜨렸다. 상심한 나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 상태로 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후 곧바로 사회로 나가 양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사회 생활을 하는 중에 대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북한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을 진학할 경우 '직발생'이라고 부르고, 사회생활을 경험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직생'이라고 부른다. 나는 양계장에서 청년 열성자로 뽑히어 당 위원의 추천을 받아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 가장 인기있는 학과는 부기과(한국의 회계과)였는데 그 과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 인기가 없었던 통계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대학은 간판이 좋은 곳에 시집가기 위한 한 줄의 경력과도 같았다. 남자들은 큰 결함이 없으면 대부분 성인이 되자마자 10년 정도 군대를 가는데, 이후 제대하는 군인 또는 당 일꾼이나 장교 등 권력 있는 남자를 잘 만나 시집을 잘 가는 것이 그 나이 또래 여자들의 유일한 목표이자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공교롭게도 내가 대학에 진학한 그 해에 김일성이 죽었다. 영원히 사실 것만 같았던 수령님의 죽음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이후 닥친 경제난은 너무나 끔찍했다. 북한의 대학교는 보통 기숙사가 있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간부의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식량배급이 되었다. 대학생활 첫 해에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기 전이라 학교에서 밥이 그런대로 잘 나왔다. 그러나 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급기야 식량난으로 수업이 어려워질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도 선생도 모두 공부는 뒷전이고 나라에서 바치라는 것을 해다 바치고 또 제 입에 풀칠하기 바빴다. 매주 주말마다 벼뿌리를 캐서 강물에 씻고 이틀동안 반건조한 후 인당 몇 키로씩 학교에 바치지 않으면 생활총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봄에는 풀을 뜯어 바치고, 여름에는 나무 껍질을 베껴 바쳤다. 나라에 바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못살게 굴었는지 수많은 나무가 다 벌거숭이가 되어 말라죽었다. 가을에는 40일 농촌 지원을 나가 농작물 수확 및 옥수수 손질을 돕고, 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권력 있는 집안의 학생들은 애초에 입쌀 몇 키로씩을 바치고 농촌지원을 감면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영락없이 농촌지원에 나가야만 했다. 심지어 입학 조건도 바뀌었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위주로 입학을 시켜주었다. 나무라도 제공할 수 있는 학생이면 입학을 시켜줬다. 어떤 학생은 탄광집 아들로 1년에 수십톤 가량의 석탄을 상납한다는 조건으로 입학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기 사정이 안 좋아져 석탄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석탄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자 학교에서 그 학생에게 심하게 압박해서 결국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쫓겨났다.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공부도 수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90분 수업 중 30분만 수업하고 1시간은 복습하도록 했다. 요즘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 장비가 없으므로 선생님들은 그날 모든 강의 내용을 칠판에 주제, 소주제를 포함하여 모두 적은 후 의자에 앉아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나가는 것이 수업의 전부였다. 그나마도 학생들은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짧은 수업 이후 남자선생님들은 산에서 풀을 뜯거나 나무를 했으며 여자 선생님들은 장마당에서 타월과 모자를 쓰고 남몰래 빵을 팔았다. 학생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선생님이 파는 빵을 사주었고 선생들도 알면서 모르는 척하며 학생들에게 빵을 팔았다.

경제난은 점점 더 심해졌다. 영양 실조가 너무 많아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졸도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라에서는1년만 버텨라, 1년만 버텨라 했지만 결국 가만히 앉아서는 다 죽게 생겼었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앞으로 제대할 남동생과 그 밑에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엄마와 나는 굶어 죽지 않을 방도를 찾아야했다. 당시 많은 이들이 국내에서는 식량을 구할 수 없어 너도나도 중국으로 넘어가 돈을 벌어오거나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손을 벌렸다. 우리 가족도 일찍이 중국에 나가서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이모 댁이 있었는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나는 혼자 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얼굴도 모르는 조카를 이모가 도와줄 리 없다며 엄마에게 같이 가자고 설득하였다.

탈북하기로 계획했던 날 밤, 브로커를 따라 국경지역 강가로 갔다. 어둡고 무서웠지마는 한 발 한 발 브로커 아주머니를 의지하며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처음에는 얕은 물이었지만 점점 물이 한도 끝도 없이 불어나고 물살도 세지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물살에 휩쓸려 엄마와 나는 이제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허우적대며 떠내려갔고, 브로커 아주머니는 나를 붙들고

헤엄치기 시작했다. 물 밖에 나와 정신을 차려보니 나와 브로커 아주머니만 있고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물 밖에서도, 물 속에서도 엄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분명히 엄마 손을 잡고 있던 기억이 있는데 중간에 놓쳐버린 것이다. 처음엔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 '다시 북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로부터의 연락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로부터의 연락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나는 이모 댁에 얹혀 살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바와는 달리 이모 댁은 한때는 갑부였으나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이미 사업이 망한 상태였다.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는 말처럼 북에서 살던 우리 집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넉넉하였다. 당시 이모 댁은 불교를 믿었었는데, 한동안은 어깨 너머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직접 매일 향불을 피우며 나 때문에 제 명에 못 죽은 불쌍한 엄마를 위해, 그리고 나 때문에 고난을 겪을 안쓰러운 동생들을 위해 조상들께 빌고 또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한국의 대학생 선교협회(CCC)에서 나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북한 출신의 학생들을 모아 예수님의 열 두 제자처럼 교육도 시켜주고 생활비도 준다며 참여할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열 두 제자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같은 동포로서 북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좋은 뜻으로 돈을 주겠다고도 해서 선뜻 참여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렸던 결정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때야 말로 나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기 시작한 기점이었다.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생기면 '하나님'이라는 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 어느 날 별안간 집안 어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더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내가 그 싸움의 한 이슈가 되고 말았다. 돈도 없고 위험한데 왜 북에서 온 나를 아직도 데리고 있느냐며 시비가 붙은 것이다.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북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며 나를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오고 갔다.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었던 나는 교회를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밤낮 할 것 없이 새벽에도 가서 울었다. 그리고 어디서 '금식기도'라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서 밥도 굶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내 상황이 너무 기구하고 분해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며 하나님께 떼를 썼다. 어느 날은 너무 소란스럽게 기도를 했는지 어떤 권사님이 금식기도는 그렇게 떠들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야단을 치시기도 했다. 집에서는 믿지 않는 어른들이 내가 밥을 먹지 않으니 반항을 한다고 나쁘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울분과 분노에 휩싸여 있던 나의 딱딱한 마음에 슬며시 '감사'라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도 결국 끝까지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늙은 이모, 이모부께 새삼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만약 이 분들이 내 친부모였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함부로 생각했을까 하는 회개도 나왔다. 남들은 잡혀가서 북송을 당하는 처지에 나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귀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집안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던 어느 날, 결국 식구 중 한 명이 나를 신고하고 말았다. 그것도 그냥 신고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이중 첩자가 왔다'라고 과장되게 신고를 하여 지역 파출소가 아니라 당국에서 체포령이 내려졌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일 아침에도 하나님과 한바탕 씨름을 하러 새벽기도를 갔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날따라 장로님 한 분이 나를 붙잡으시며 손님들이 오셨으니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하셨다. 만약 곧바로 집에 갔다면 체포당했을텐데 신비한 주님의 은혜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장로님께서 헐레벌떡 오셔서 지금 큰일났다고, 나에게 얼른 도망가라고 하셨다. 교회 앞에 지프차가 들어와서 살펴보니 안전국에서 일하는 본인의 조카가 있었다며 아무래도 자매를 잡으러 온 것 같다는 것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교회 뒷문 쪽으로 부리나케 도망간 나는 근처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 집사님 댁에 도움을 청했다. 나이가 지긋했던 집사님은 오갈데 없는 나를 받아 주셨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나를 찾지 못한 요원들은 그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육로와 철로를 봉쇄하였다.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된 나에게 집사님은 육로는 감시가 삼엄하여도 수로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탈출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고 교회 뒤편에는 강이 있었다. 깊지는 않은데 물살이 세서 얼지 않은 강이었다. 추웠지만 꾹 참고 집사님과 함께 강을 건넜다. 다행히 집사님 말씀처럼 그쪽으로는 별다른 감시가 없었다. 그렇게 그곳을 떠나 상당히 먼 길을 이동했다. 산을 넘어가며 장시간 이동한 끝에 어떤 작은 마을에 들어섰다. 집사님께서는 나를 그 마을에 있는 교회로 안내해 주셨다.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는 나를 받아 주셨고 나는 주님이 준비해주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일년 남짓 머물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은 나를 아셨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피할 길로 인도하셨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나를 중국으로 인도하셔서 돌보신 것도, 집안 갈등 때문에 의지할 곳이 꼭 필요했을 시점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신고를 당하여 도망갈 곳이 필요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교회와 집사님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피할 곳을 허락하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다시금 고백해 본다. (계속)

+ 북한, 연초 연달은 미사일 발사 실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평안북도 철도기동 미사일연대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검열사격 훈련이 14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신년부터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이후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을 쐈다. 그리고 1월 17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KN-24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북한 주장)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에 이어 KN-24까지 모두 남측을 겨냥한 새 무기들로, 종류를 바꿔가며 연초부터 대남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북한이 발사한 KN-23과 KN-24의 사거리는 400㎞ 안팎으로 남한 주요 지점 타격이 가능한 정도이며, 정점 고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최저 요격고도(50㎞)보다 낮아 대응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KN-25 시험발사에도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KN-25를 발사한 건 2020년 3월이 마지막이다. 북한은 이를 '초대형방사포'로 부르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KN-23, KN-24, KN-25는 모두 북한이 실전배치한 미사일로, 현재도 생산을 계속하며 보유고를 늘려가는 무기다. 무기고에 들어찬 단거리 탄도탄의 신속배치와 정확성, 연발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발사를 계속해 군사력을 과시하고 미국의 제재에 맞서 내부결속도 다지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2월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는 잦아들 가능성이 크지만, 3~4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북한, 핵 실험·ICBM 발사 중단 재검토 시사

〈지난 1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모라토리엄)하던 조치 철회를 시사했다.

1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당 총비서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

통신은 "정치국 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면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런 중단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며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한국일보, 1월 20일〉

+ 김정은, 24개월만에 북중국경 열었다…북 화물열차 단둥 도착

북한 화물열차가 북중 국경 봉쇄 24개월 만에 중국에 들어갔다. 이는 국경을 전면 개방한 단계는 아니지만, 국경을 걸어 잠근 지 2년 만에 일부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물적 교류만 공식 재개한 것으로, 내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인적교류로 확대될지 관심을 끈다.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 신의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열차가 1월 16일 오전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도착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1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24개월 만이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은 같은 해 여름 중국과의 육로 무역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반 만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열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북한 신의주에서 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로인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를 통해 단둥으로 건너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운행한 화물열차는 중국에서 긴급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싣고 북한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매일 10~20량 길이의 화물열차가 중국으로 들어가 물자를 싣고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하여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단둥에서 신의주까지 철도 화물 운송이 이미 재개됐다"고 확인하고 "양측은 방역 안전을 확보하는 기초 위에서 화물 운송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양국의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돕겠다"고 밝혔다.

북중은 중국 동북지역의 코로나19가 수그러들자 작년부터 철도를 이용한 육로무역 재개를 모색해왔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됐으나 갑자기 중국 동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무산됐다. 〈참고: 연합뉴스 1월 16일, 18일〉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러가 보류 요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유엔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의 제재 요구는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제안에 대해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으며, 러시아도 같은 날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 중국은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의 채택을 사실상 막아왔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국제 외교무대에서 전방위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추가 제재 저지는 거의 예견된 일로 받아들여졌다.

양국의 보류 요청은 지난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소집된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에 이뤄졌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작년 국내 입국 탈북민 63명…코로나로 전년보다 72% 감소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63명으로 직전 해보다 약 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남성 40명, 여성 23명 등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해인 2020년(229명)보다 72.4% 줄어들고, 지난 2019년(1천47명)보다는 94% 감소한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에 31명, 2분기에 5명, 3분기에 12명, 4분기에 15명의 탈북민이 국내로 들어왔다.

통상 탈북민들은 북한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다. 그러나 2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북중 국경봉쇄와 각국의 이동 제한 등으로 지난해 국내 입국이 어려웠을 걸로 통일부는 추정했다. 〈참고: 연합뉴스, 1월 20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한반도 평화학 -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
저자: 김태균 외
출판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발행일: 2021년 3월 25일
가격: 26,000원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연구는 주로 남북통일의 논의 속에서 다루어져왔다. 한국사회에서 "평화통일" 이라는 단어는 거의 한반도 평화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가 갖는 절대성을 방증한다. 평화통일이라는 단어에 있어 "평화"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데 반하여 "통일"은 상대적 가치이다. 다른말로 하면 "평화"는 그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이지만 "통일"은 그 통일이 어떤 통일이냐에 따라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야할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적어도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평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모음집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통일"을 상수로 놓는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변수로 놓았다는 점이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은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시 생각한 평화와 통일을 각각의 개념에 집중하여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는 한국교회의 통일운동 지도자들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2장-7장은 세계질서, 비핵화, 남북협력, 남북통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이 책의 서론 1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호전환'과 결론을 이루는 8장 '한반도 전략적 평화를 위한 시론: 평화조건과 양자승인의 이중주'는 모두 이 책의 책임저자인 김태균 교수에 의해 쓰여졌는데, 모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논문에 이례적일만큼 "통일"이라는 단어가 적게 쓰이고 있다. 그만큼 독자들은 "평화"에 집중하여 한반도의 문제를 보게 된다.

한반도 평화연구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국내정치와 북핵문제 등 북한 대외전략 중심의 북한-통일연구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를 분석하는 국제정치학연구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이 책의 1장의 저자에 의하면 학계에서는 북한을 전체주의 집단으로 상정하고 특수한 전체주의 북한을 상대하는 북한연구와 남북관계연구를 한반도 평화연구의 1세대로 구분한다. 2세대 연구방법론은 북한의 특수성을 전제로 기존 북한정치체제 분석에서 북한의 일상생활연구 및 북한문화연구와 같은 비정치 분야까지 전문화하여 철저히 북한의 내부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재구성하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으로 주목 받았다. 이후에 1세대와 2세대 모두 북한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내재적 접근의 방법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보편성 중심의 외재적 접근법이 한반도 평화연구의 제 3세대 연구방법론으로 부상한다. 한반도 평화학에 대한 저자의 위와 같은 세대구분은 북한-통일연구의 세대구분과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학과 북한-통일연구의 밀접성을 보여준다. 저자는 또한 북한의 특수성을 북한연구 및 한반도 평화연구의 절대적 상수로 전제하는 기존의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더욱이 인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북한을 재평가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국제사회의 규범과 관행으로 환치해야 한다는 대안적 시각은 특수성 중심의 기존 연구방식에 보편적 가치 중심의 새로운 평화학적 요소를 가미하여 더욱 포괄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제1부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국제관계라는 거시적인 단위에서 분석한다. 2장 '탈냉전기 미국 주도 세계질서와 평화'에서 전재성은 현재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이 전 세계 평화의 안정적 유지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탈냉전 시에 미국이 제3세계의 탈식민지 문제를 미완결 상태로 끌고 왔던 점, 미국 중심의 단극의 경제적 기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면서, 향후 미국이 진정한 패권적 리더십을 갖추고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패권적 리더십으로 회향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바이든 정부의 정책방향이 주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권적 평화가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3장 '북핵 논의의 비판적 재고'에서 김성철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슈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하였지만 보편적 핵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보편과 특수의 상호 전환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북핵문제와 비핵화 이슈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핵(무장)은 크게 핵 비확산 문제인 동시에, 핵 통제 및 폐기의 협상 대상이며, 핵 억제를 수반하는 실존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한다. 북핵이 한반도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못지않게 핵 자체가 동반하는 보편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

면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북핵문제의 본질이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장 '남북한 군사협력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넥서스'에서 황지환은 과거 남북한이 사회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확산(spill-over) 효과를 추구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북한 군사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반면, 2018년의 군사분야 합의는 사회문화 및 경제 분야의 합의 없이 군사분야의 과감한 합의를 통해 남북한 전 분야에 협력과 평화를 진전시키려는 역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취했다고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주의와 역기능주의 모두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논의와 이행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제2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5장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에서 최규빈은 남북경협을 운용한 지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적극적 대북관여,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조건적 대북관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북관여로의 전환으로 구분하여 발전 경로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경협이 북한의 실질적 행동과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자 과정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지 고찰한다. 제6장 '통일비용 재정의와 비용추계 혁신 방안'에서 네 명의 저자들은 지금까지의 통일비용 추계연구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전적 관점에서 통일비용 추계 연구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비용 연구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통일시기를 비롯해 남북한 소득격차 조정 목표도 함께 분석하여 이러한 보편적인 쟁점이 최근 한반도 상황의 특수한 변화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제7장 '평화로 함께 가는 여정: 통일 공론화에 대한 소고'에서 김석호는 통일과 평화로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범국민적 차원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통일 방안을 만드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공론화의 조건과 구체적 과정에 대한 그림을 타진한다. 또한 독일의 통일 공론화 경험 사례를 검토해 우리의 공론화 원칙에서 참고할 만한 교훈을 도출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두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두 개념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시너지는 다양한 수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우선, 통일과 평화의 이슈 영역 간 경계를 허물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현재 분단 상태에도 지속될 수 있지만 적극적 평화는 통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단계적 접근은 그 이면에 통일과 평화는 상호 전환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단절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다시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고가 깊숙이 배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가 경험한 다양한 평화구축 사례를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과 교차하여 비교하기를 꺼리는 경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통일이 특수성에 기초한 가치라면 평화는 보편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가치가 상호교차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는 각각의 제한된 경계 안에서만 맴돌 것이다."
여러 논의를 돌고 돌아 저자가 도달한 결과는 결국 "평화와 통일이 상호 교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소 뻔한 결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책은 여러 논의를 통해 통일의 가치에 대해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비교해 보편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가치로 치부할 위험을 제거하며, 오히려 한반도의 특수한 가치로써의 통일의 의미를 지정한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책의 결론에서 저자는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민주평화론, 제도주의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토대로 전략적 평화(strategic peace), 양질의 평화(quality peace), 혼종적 평화(hybrid peace)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평화를 위하여 저자는 UN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분쟁이후 평화구축의 주요 성공사례인 나미비아, 모잠비크, 캄보디아의 사례 모두 UN의 역할이 결정적 이었던 까닭이다. 저자가 말하지는 않지만 않으나 혼종적 평화는 다분히 (국제관계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개념이다. 또한 UN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역시 자유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설명하는 전략적 평화는 분명한 현실주의적 개념이며 양질의 평화는 구성주의적 개념이다. 저자는 이론에 기반을 둔 그러나 이론에 매몰되지 않은 평화논의를 시도한다.

평화는 모두가 원하는 가치이자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실체이다. 그리하여 평화를 실천하는 문제에서 보면 대단한 전문성 보다는 실천적, 도덕적, 윤리적인 면만이 강조된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에서의 핵 위협 문제, 인권문제, 팬데믹에 대한 대처, 신뢰 구축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와 진지한 고민 없이 소비되는 평화의 개념은 단순한 슬로건밖에 안된다. 통일도 그렇다. 통일은 남북한 사회 모두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슈이다. 통일에 대한 실체적 고민 없이 외쳐지는 통일이라는 단어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의 근원에 자리 잡은 "분단"을 해결하여 사회의 수많은 모순을 극복하게 만드는 요술방망이 수준의 이해를 낳는다. 이 책은 이 중요한 두 가지 개념, 평화와 통일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하나의 주장 속에서 모든 장이 수렴하는 책이 아니다. 각 장이 다른 주제에 대한 개별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한반도라는 분석대상을 관찰하는 시점에서는 분명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장은 한반도 문제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보편적 성격을 보다 강조해서 살펴보겠다는 공통의 토대에 서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 장이 보여주는 남북관계의 보편적 성격에 대한 함의는 남북관계 연구와 통일연구가 왜 '평화학'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책은 특수성에 초점이 맞추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논의에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책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문제에 대해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이 잡힌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2022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이 년초부터 연달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이제는 18년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소강상태에 있었던 북핵문제가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하루속히 한반도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되어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심각한 경제난 속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혹독한 겨울과 여전한 국경 봉쇄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 4차 전원회의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북한의 경제문제는 당국에서 관련 정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북중 화물열차가 운행을 재개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계와 경제를 챙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핵과 ICBM 개발을 이야기하는 지도부의 움직임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민생이 아닌 정권유지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신앙적 배경으로 인해 오지로 추방되거나 광산 등 험한 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믿음의 가족과 후손들은 그 고통이 더욱 심각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의 삶을 위해, 특히 신앙인의 후손 및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후손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의 사역 및 여러 기관의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더 많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1월에 발표된 2022 오픈도어 세계기독교박해지수 (WWL)에서 북한은 최악의 박해국가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순위 변화가 북한의 박해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닌, 박해 사례 정보 수집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며 오히려 북한의 박해지수는 증가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철저한 국경 통제와 정보 차단으로 인해 박해 연구에 제한은 있었지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과 관련 단속, 검

북한 기도 제목

열 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기독교 박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통제와 단속 속에서 북한 당국의 주요한 색출 대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와 결단,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북녘의 형제자매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각종 병마와 경제난,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오른팔로 보호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잊지 않고 관심과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4. 지난 1월 5일 2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철책을 넘어 재입북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민의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왔다가 다시 월북한 탈북민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0여명에 이르며 1월 6일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47%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모범적으로 성장한 젊은이들도 패배와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한국사회에서 아무것도 없이 늦은 나이에 경쟁에 뛰어든 한국생활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탈북민들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통일을 배우고 북한 복음화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탈북민들의 국내정착과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체적인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5. 1월 20일 발표된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년간 탈북민 63명이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1분기 31명, 2분기 5명, 3분기 12명, 4분기 15명이 들어왔습니다. 63명은 지난해 229명 대비 72.4%, 2019년 1047명에 비해 94%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코로나에 따른 북중 국경 통제와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 영향으로 입국자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 통제 속에서 오랜 기간 발이 묶인 탈북자들이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체포당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북송의 소식도 들립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선교단체나 선교사들, 현장의 사역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체포된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이기에 북송되었을 때 받을 핍박과 고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숨어있는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탈북자 북송이 중단되고 체포된 탈북자들이 자유를 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6. 북한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국경은 봉쇄되었지만 복음을 실은 전파는 북녘을 향해 매일 밤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로부터 라디오 선교 방송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격려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의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과 북한의 주민들이 라디오 등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송출을 위해 수고하며 협력하는 관련 기관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주시도록, 그리고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파되도록 기도합시다.

7. 남한은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이슈의 재점화 등 다시금 요동치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선출되게 되는 만큼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대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가안보, 평화, 남북관계에 대한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지혜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표되고 주목받도록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딤전 2:1-2).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1월 27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사역 조건 선정된 선교사 후보생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파송선교사 자격이 주어지며,
파송선교사에게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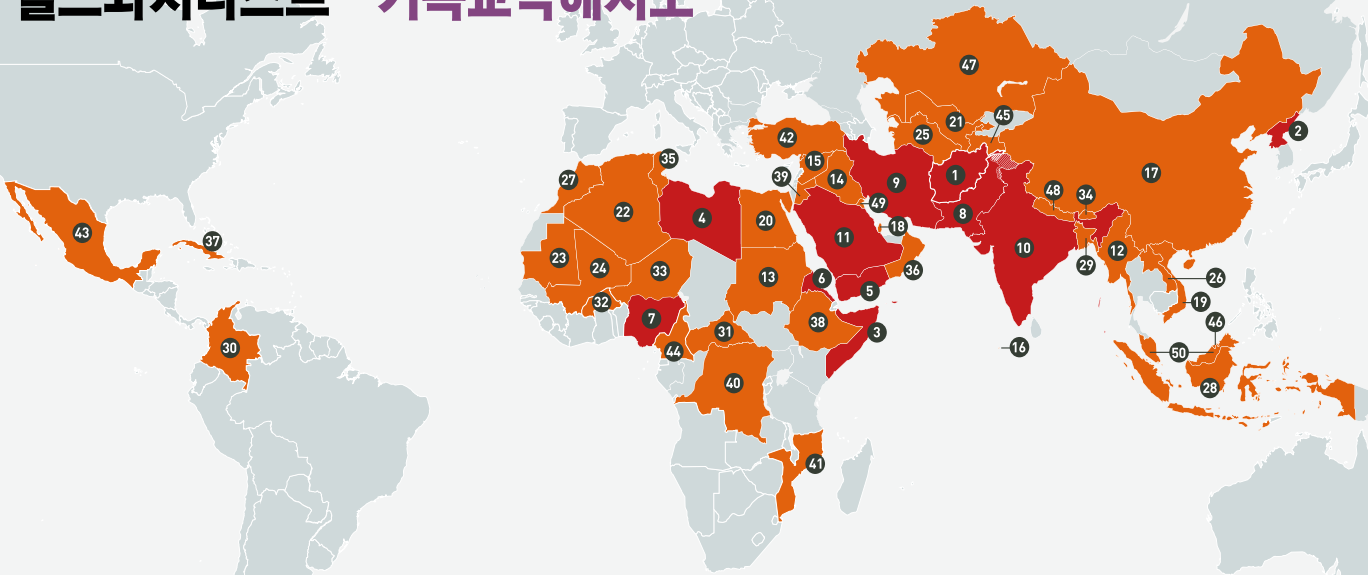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문 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WORDL WATCH LIST 2022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박해지도



		TOTAL SCORE
1	아프가니스탄	98
2	북한	96
3	소말리아	91
4	리비아	91
5	예멘	88
6	에리트리아	88
7	나이지리아	87
8	파키스탄	87
9	이란	85
10	인디아	82
11	사우디아라비아	81
12	미얀마	79
13	수단	79
14	이라크	78
15	시리아	78
16	몰디브	77
17	차이나	76
18	카타르	74
19	베트남	71
20	이집트	71
21	우즈베키스탄	71
22	알제리	71
23	모리타니아	70
24	말리	70
25	투르크메니스탄	69
26	라오스	69
27	모로코	69
28	인도네시아	68
29	방글라데시	68
30	콜롬비아	68
3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68
32	부르키나파소	68
33	니제르	68
34	부탄	67
35	튀니지	66
36	오만	66
37	쿠바	66
38	에티오피아	66
39	요르단	66
40	콩고	66
41	모잠비크	65
42	터키	65
43	멕시코	65
44	카메룬	65
45	타지키스탄	65
46	브루나이	64
47	카자흐스탄	64
48	네팔	64
49	쿠웨이트	64
50	말레이시아	63

ABOUT THE WORLD WATCH LIST…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취득한 실제데이타를 이용하여 분석한 데이타입니다. 각 국가별 박해지수는 폭력과 압박 정도를 분석한 하나의 포인트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이는 삶의 5가지 영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입니다.

폭력 | 개인영역 | 가정영역 | 공동체영역 | 국가영역 | 교회영역

각 영역별 최고 지수는 16.7이며, 전 영역 지수의 총 합은 100점입니다.
각 국가의 순위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100점 만점 기준 영역별 점수 총 합으로 결정됩니다.

박해수준

- **높음** 41-60 points
- **매우높음** 61-80 points
- **극심함** 81-100 points

순위 내 모든 국가들은 매우높음이나 극심함 수준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폭력 + 압박 = 순위